

에이에프더블류, 2분기 매출액 18억 원

▶ 전년동기비 36.2% 감소... “부스바, FSW 기반 친환경차 부품 등 성장 이끌 신제품 개발 주력”

<2021-08-13> 2차전지 핵심 부품회사 에이에프더블류(주)(312610, 대표이사 진정아)는 2021년 2분기 매출액 18억 원, 영업손실 6억 원, 당기순손실 3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36.2% 감소하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지속됐다. 주력 제품인 음극마찰용접 단자의 수요 감소와 신사업 진입 설비 및 R&D 비용 투자가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에이에프더블류는 신규 제품인 CAF, CCA 부스바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재기를 노릴 방침이다.

부스바는 배터리에서 전장품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부품으로, 상장 전부터 R&D를 지속해온 만큼 원자재 Loss를 최소화하고 안전성과 전기전도율이 높은 제품을 선보여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원천기술인 RFW(회전마찰용접)과 더불어 FSW(마찰교반용접) 기반 친환경차 전용 부품도 개발 중이다.

FSW는 알루미늄 등 경금속 접합에 특화된 신용접기술로 경량화가 숙제인 완성차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설비투자 완료 후 시운전 중이며, 국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협의를 가속화해 제품 양산 및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포부다.

에이에프더블류 관계자는 “음극마찰용접단자를 대신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신규 아이템을 다각도에서 발굴, 개발하고 있다”며 “산업 트렌드를 읽는 선제적 투자는 기업 성장에 필수적으로, 부스바는 물론 FSW를 적용한 다양한 전장품을 개발해 중장기 성장을 이룰 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